

오지·낙도 주민, 영세민 무료 검진 등 공익 사업 확대



하성미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새 천년의 희망과 함께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2천년이 시작되었다. 35년여를 하루같이 오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그간의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천년에는 국민 생활과 보다 가까이 하는, 보다 공익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IMF라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사무총장직을 맡아 2년여간 협회를 운영해 오면서 건강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 교육과, 질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 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 소외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앞장서고자 한다.

1999년 한해 동안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 보건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우선 국민 보건 의식 향상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 교육 사업으로, 지역별 건강 관리 공개강좌·강연회 개최, 언론 매체를 통한 건강 정보 전달, 초등학교 대상 금연 글짓기, 월간 '건강소식' 등 건강 관련 책자와 '흡연의 피해와 금연 방법', '여성 암

로 하는 무료 검진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실시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벽오지 주민 암 검진과 건강 검진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해 12만여 명을 검사했다.

네 번째로 정확한 건강 검진과 효율적인 검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이다. 협회가 실시하는 건강 검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정도 관리, 다양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 개발, Y2K 문제에 대비한 전산 시스템 보완, 건협 창립 35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을 통해 2천년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회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35년간 우리가 발전시켜 온 기술 등은 외국에 전하고, 또 외국의 선진 기술은 습득하여 모든 사업의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교류 사업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19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한·중 기생충 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중국 현지 주민의 기생충 퇴치를 통한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앞으로 동남아 지역 국가의 기생충 지원 사업으로 국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과 골다공증의 예방' 등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무료 배부하였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거한 보건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순회 이동 보건 교육, 인터넷 전자신문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의 금연 캠페인인 '청소년을 위한 금연쟁', 청소년의 건강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청소년 건강 캠프' 등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두 번째로,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의 조기 발견·조기 치료 유도를 위한 예방 의학적 목적의 건강 검진을 일반 개인 내원자와 농업인·근로자·학생·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건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검사 수수료를 의료보험 숫가에 준해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로, 사회 환원 사업, 즉 저소득층 주민·장애인·사회 복지 시설 수용자 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은 얼마나 살았는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즉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다. 양질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양질의 삶,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 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 최고의 목표로 하여 새해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새해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벽·오지 및 낙도 주민, 영세민, 복지시설 수용자, 불우 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 및 의료 사각 지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검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생활을 실천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소외 계층 주민들은 생활에 쫓기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 혹은 공익적 차원에서 보건 의료 혜택을 부여해야만 전국민의 건강 증진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새해에는 소외 계층 주민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기금과 지자체 예산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 암 검진 사업, 성인병 검진 사업

도, 이동 검진 버스를 활용한 협회의 기동력을 최대한 살려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료 사각 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2천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의 초점을 예방의학적 차원에 두고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건강 검사 결과 이상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예방과 치료의 적절한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천년도에는 또 그간의 사업에 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집단 사업이나 특수 검진, 근로자 신검 등 보건 예방 사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사업 및 협회 운영의 대내외적인 조화와 균형을 잡아 나갈 계획이다.

새해에는 또, 청소년 건강 캠프, 금연 캠페인, 흡연자 폐암 검진, 금연 실천자 지원, 금연 글짓기, 금연 사진 공모, 순회 이동 보건 교육 등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 생활 실천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외에도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 교육 사업, 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도 관리 및 전산 시스템의 정착 등 조사 연구 사업, 직원 자질 향상과 기술 함양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 저개발 국가 기생충 관리 사업 지원을 통한 국제 교류 강화와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을 회고해 보면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신속하고 과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의 동반자인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협회의 운영 방침으로 책임 경영, 친절 봉사, 정도 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협회 건강 증진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공익성 도모를 강조해 왔고, 어느 정도 공익 보건 의료 기관으로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검진과 보건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바라건대 새 천년에는 보건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 증진 사회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맡은 업무의 개성을 살리는 한편 서로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